매화반의 11월 놀이 '은행'

1. 낙엽 비

"선생님! 나뭇잎들이 비처럼 떨어져요~!"

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들을 맞으며
'낙엽 비 내리기' 놀이를 하며 가을을 느껴 본다.

2. 나뭇잎 베껴내기

"우와, 종이에 나뭇잎이 나타났어요"

단풍잎, 은행잎들을 모아 종이 아래에 두고, 그 위에 색연필로
색칠을 하니 낙엽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났어요.

"은행잎이 부채같이 생겼다!"
"단풍잎은 아가 손바닥 같아!"

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?

교사의 지원

3. 함께 알아볼까요?

"이 책에도 은행나무가 있어요~!"

선생님과 함께 '은행나무의 노래 ' 라는 책을 읽으며
은행나무의 성장과 은행 열매에 대해 알아 보아요.

"은행나무 씨앗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어요"

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,
열매는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
4. 먹을 수 있어요

"은행을 먹기도 한대요~"

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

5. 은행을 구우려면?

"팝콘 터지는 소리 같아요."
"고소한 냄새가 나요!"
"은행이 색깔이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"

잘 구워진 은행 열매의
딱딱한 껍질은 무엇으로 깰 수 있을까?
내가 생각하는 교실 안의 단단한 물건은?

가을이 되어 알록달록 변한 나뭇잎으로
즐겁게 놀이하며 행복한 가을을 보냈어요.
떨어져 있는 은행 열매는 더이상 냄새나는 열매가 아닌
매화반 친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열매,
씨앗이 자라서 은행나무가 되는 멋진 열매가 되었답니다.
재미있는 은행 열매 놀이는 내년 매화반 동생들에게 소개 해주고 싶어요.

동생들을 위한 '은행 구이' 요리 순서도 만들기◀